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17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녹) 연중 제17주일 (23. 7. 30.)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나라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는 비유 말씀을 듣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얻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듯이,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가치를 깨달는다면, 언제나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복음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열왕기 상권 3,5-6 7.7-12):

그 무렵 5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6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7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8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9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10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11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12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 제2독서(사도 바오로 로마서 8,28-30):

형제 여러분, 28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9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30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 복음(마태복음 13,44-52):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44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46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47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과 같다.

48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49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50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51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5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 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화답송

-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교회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지내는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 내고, 복음 선포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불의를 멀리하고 양심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여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굶어살피시어, 굳건한 마음을 주시고, 저희도 주위를 살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4. 본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본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살피 주시어, 전례 안에서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 안에서 실천하며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수난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공지 사항

- ♣ **본당 주임신부 휴가**
 - 일시 : 8월 9일~9월 1일(3주간)
 - 8월 본당신부 휴가 기간 동안 조재익 세례자요한(로마 유학) 신부님께서 주일 미사 집전해주십니다.
- ♣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야외 미사는 없습니다. 현지 본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축일 미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90.70 • 교무금 € 0.00